학생 요구 반영한 학점포기제 확대 '성과'
자기설계학점제 도입 · 해외 교류 활성화는 다음 과제로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총학 공약점검–서울캠퍼스



총학은 "남은 임기 동안 이행하지 못하는 공약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라수 기자)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의 공약을 점검했다. ▲학점지우개 도입 ▲학생 참여형 축제 등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과 한수연(호스피탈리티경영학 20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8개월간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점, 차기 총학에 남기고 싶은 과제를 들었다.

학생 목소리로 바꾼 학사제도 학점지우개 도입으로

신 회장이 임기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것은 학점포기제도 확대다. 이번 학기부터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전공과 교양필수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에서 졸업 전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총학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돼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 등으로 제한됐던 학점포기 대상을 전 교과목으로 넓히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본부는 지난 4월 제도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총학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생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월 도입을 확정했다.

총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본부에 전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다. 3,822명의 답변을 모두 읽고 분석해 제도 확대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며 본부를 설득한 과정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한 부회장은 "사례를 일일이 읽으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제도의 확대로 구제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사례를 하나씩 매일 메일로 보내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이 만드는 대동제 연예인 섭외 중심 운영은 고민

한 부회장은 임기 중 학생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한 활동으로 대동제와 해커톤을 꼽았다. 특히 대동제에서는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 총학은 축제 기간 방탈출과 카드게임, 축제 곳곳에 숨겨진 카멜레온을 찾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캠퍼스타운에 입주한 창업 기업이 제품을 시연할 수 있는 창업 플리마켓도 마련했다.

학회와 협업해 축제 정보와 공연 시간표, 노천극장 혼잡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구축했다. 신 회장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축제를 바라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 입장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대기 공간을 마련해 도로에 줄이 길게 늘어서는 상황을 줄이고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썼다. 1학기 대동제에서는 입장하지 못한 학생들의 불만을 예상하지 못한 운영상의 아쉬움도 짚었다.

총학은 학생 참여형 축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역대 총학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썼다. 올해 봄 대동제 예산은 교비 기준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 원 늘었다. 신 회장은 "연예인을 부르지 않고 예산을 아끼고 싶었으나, 학생들이 연예인들을 원하고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에 따라 총학생회를 평가해 섭외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 역시 연예인 섭외에 쏠리는 관심이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강의실 밖 배움 인정과 해외 교류 확대 자기설계학점제 · 복수학위는 과제로

학생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 및 수행하고 그 성과를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기설계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신 회장은 이를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현재 대학의 학점 인정 방식이 강의실 안에서 이뤄지는 학습에 한정돼 있어 강의실 밖에서 얻는 배움도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우리 학교의 학점 인정 제도는 지나치게 강의실에 국한돼 있다"며 "대학의 학점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 대학본부와 논의 중이다. 한 부회장은 해외대학 복수학위제도 활성화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아쉬운 공약으로 꼽았다.

총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국제교류팀과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한 부회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협상 대응 TF 운영 학생 의견과 협상 경험은 차기 총학에

등록금 협상 대응 TF 운영도 차기 총학에 남길 과제다. 기존 구조는 총학생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들어가 협상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총학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캠 총학과 함께 TF를 발족해 등심위 개편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해왔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논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려드리는 게 좋겠지만 차기 총학생회가 이어받을 전략인 만큼 임기 중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총학은 임기 중 수집한 학생들의 의견과 본부와 협상한 경험을 차기 총학에 전달할 계획이다.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길 원하는 지에 관한 수요조사와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데이터로 정리해 인수인계하겠다는 것이다.

본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대응 전략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학생 의견 수렴도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해당 과정은 임기 중인 12월 말 중 진행되거나 차기 총학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